

죄책감과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위와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Guilty and Rule Violation Acts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김경연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소비자·주거학과
박사과정 하영희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College of Human Ec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Kyong-Yeon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College of Human Ec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Ha, Young-H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 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ffects of adolescents age, sex and parental types on the types guilty, and correlations between the Rule violation types and guilty types. A All of 698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wer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Younger adolescents reported more guilty feelings than older adolescents in all types of guilty. Female adolescents reported more in selfish type guilty than males. Parental induction induced more guilty feeling to adolescents than love withdrawal and power assertion. Younger adolescents reported lower rates of violation in all types of rule violation than older adolescents. Male adolescents reported more violation in public related rule violation and property damage rule violation than females. There were negative relation between all guilty types and all Rule violatio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its implication and following study were suggested.

I. 문제제기

흔히 청소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을 말할 때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거론되며, 가치관 형성과 관련되어 중요시되는 것은 도덕성 발달이다. Kohlberg는 도덕성을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의 문화적 규범이라고 정의하는 데(조희숙 외, 1995), 결국 도덕성은 그 사회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행동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규칙위반 행위는 속이기, 거짓말하기, 훔치기 등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함을 말하는 데 개인이 규칙위반 행위에 미치는 주요변인들 중 하나는 죄책감이다(최순영, 김수정 역, 1995). 죄책감은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자기비난적 부정적 정서로 도덕적 금지 행위를 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Freud는 도덕발달을 행동의 외적통제가 내적 자아조절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은 죄책감을 바탕으로 촉진된다고 하였고(최순영 역, 1989), 연구결과들도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위반 행위를 적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대한 자기억제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b; Bybee, Williams, & Merisca, 1994; Malinowski & Smith, 1985; Mosher, 1979). 그리고 죄책감이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ybee, Williams, & Merisca, 1994; 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성이 거론되는 데, Kohlberg는 죄책감을 공격욕구의 내면화라고 정의하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죄책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덕성이 발달하여 공격욕구를 억제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어린 청소년이 연령이 많은 청소년보다 위반 행위가 적다(청소년 백서, 1998)는 보고는 연령의 증가가 언제나 죄책감 수준을 증진시킨다고 단정짓기 힘들게 한다.

Gilligan(1982)은 여성과 남성간 도덕성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들은 정의의 관련 도덕성으로 인한

죄책감보다는 대인배려 관련 도덕성으로 인한 죄책감이 더 크다고 하였고, Williams와 Bybee(1994)도 타인과의 친밀성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죄책감을 더 많이 기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Badwin은 선천적으로 남성의 양심이 여성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 남성의 죄책감 수준이 더욱 높다고 보았다(정은수, 1985, 재인용). 한편 죄책감이 성별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정은수, 1985) 성별차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연령과 성별 외에 죄책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훈육방식을 들 수 있다. Freud에 의하면, 내면화된 도덕성 기준인 죄책감은 부모와의 동일시 및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훈육의 결과이다. Aronfreed(1964)는 자녀에게 자기 비난적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벌과 애정철회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Hoffman(1977)은 위반 후 죄책감을 많이 나타낸 아동은 설득형으로 훈육 받은 아동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훈육방식이 자녀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떤 훈육방식이 자녀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적인 변인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Williams와 Bybee(1994)는 5학년, 8학년, 1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행동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규칙위반 행위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한 죄책감을 가장 많이 기술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죄책감 연구에서 죄책감의 유형에 따른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죄책감이 규칙위반 행위의 억제 및 감소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도덕성의 정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지적 요인에 비해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Williams와 Bybee, 1994). 특히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도덕추론을 통한 도덕성 발달단계를 진단하는 연구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판단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송명자, 1995), 죄책감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죄책감 측

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죄책감 관련연구들은 국외에서 제작된 것이거나 그것을 수정한 척도로서, 한국청소년의 도덕적 행위와 관련한 죄책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과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관련한 문항들을 수집하여 제작한 죄책감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죄책감의 유형 역시 구분될 것이므로(Williams & Bybee, 1994), 유형별 죄책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죄책감 연구가 도덕성의 정의적인 요인 연구라는 점에서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죄책감과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도덕발달에 대한 이해와 도덕교육 환경구성에 도움이 될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칙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죄책감이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훈육방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죄책감 유형별로 살펴보고, 또한 청소년의 연령, 성별에 따라 규칙위반 행위의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죄책감과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형별 죄책감은 연령별, 성별 및 부모의 훈육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는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는가?
3. 유형별 죄책감은 청소년의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와 상관이 있는가?

II. 관련연구 고찰

1. 죄책감과 관련요인

Freud는 부모에 의하여 형성된 초자아가 사회적 행동양식 및 규칙에 미치지 못할 때, 인간은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Murray는 인

간의 내면에서 초자아에 의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후회감을 죄책감이라고 하였고, Jung은 모순된 두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낌으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는 데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하였다. 또 Kohlberg는 죄책감을 자아와 타인에 대한 동일시의 산물이며 근본적으로 자기 처벌적이며, 자기 비판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 데 대한 후회 혹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 공격욕구의 내면화라고 하였다(정은수, 1985. 재인용).

Williams와 Bybee(1994)는 5학년, 8학년 및 11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행동을 기술하게 하여 연구한 결과, 죄책감에 대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법을 어기는 것, 부모와 학교 규칙을 어기는 것 등의 외현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5학년, 8학년에는 증가하나 나이가 더 들수록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대조적으로 내면화하는 가치들에 대한 죄책감은 연령 증가에 따라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별차는 상황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내면적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죄책감의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은수(1985)는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에서 죄의식에 대한 성별차는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을 도덕적으로 사회적 행동 규칙을 위반한 후에 느끼는 자기 비판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죄책감의 연령 변화 및 성별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죄책감에 부모의 훈육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ronfreed, 1964; Hofman, 1977)가 있다. Aronfreed(1964)에 따르면, 부모의 처벌이나 애정 철회가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을 애정 철회, 완력 사용, 설득의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죄책감과 훈육방식의 관계를 연구한 Hofman(1977)은 설득형으로 훈육 받은 아동이 주인공에게 더 높은 죄책감을 투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죄책감과 부모의 훈육방식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규칙위반 행위와 관련변인

일반적으로 연령차와 규칙위반 행위에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서로 일치를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박덕원(1987)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직성의 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광금주(1998)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Moore와 Stephens(1971)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속이기를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성별차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남성의 도덕성이 여성의 도덕성보다 우위라는 Kohlberg와 프로이드의 연구결과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영희(1996)는 여아가 남아보다 거짓말을 적게 하거나 질서위반 등을 더 적게 한다고 하였고, 광금주(1998)도 여아가 남아보다 반사회적 행위를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덕원(1987)은 남아가 더 정직한 행동을 하며 Burton(1971)도 남아가 여자보다 거짓말을 더 적게 한다고 보고하여 규칙위반 행동과 관련한 성별변인 또한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3. 죄책감과 규칙위반 행동

죄책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reud는 도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또 다시 그것으로 처벌을 받을까봐 불안을 가지며, 보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그의 양심은 엄격하여 죄책감은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죄책감이 형성되면 아동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사회의 규칙에 순응해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다. 죄책감이 사회규칙의 순응에 도움이 된다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사회규칙 위반에 대한 연구는 도덕성 발달의 다른 영역에 비해 조사연구가 미진한 편이다(Williams와 Bybee, 1994).

국내에서는 정은수(1985)가 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박주란(1995)은 죄책감 수준이 낮은 집단이 죄책감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위반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들의(Mosher, 1979; Bybee, Williams, & Merisca,

1994) 결과를 보면 죄책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일탈행위를 더 적게 하며, 특히 Malinowski & Smith(1985)는 죄책감과 자신의 추적 과제에서의 수행점수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위반행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죄책감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많이 위반행위를 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도덕적 행위와 죄책감사이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을 행위를 적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즉, 죄책감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는 약하다는 연구결과(Maccoby, 1959; Santrock, 1975)도 있어 본 연구에서 죄책감과 규칙위반 행위간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소재하는 1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로부터 임의 추출된 중학교 1학년,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698명(남; 366, 여; 332)으로 중학교 1년생이 236명, 중학교 3년생이 219명, 고등학교 2년생인 243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이다. 중학교 1년생, 중학교 3년생 및 고등학교 2년생을 연구대상자로 선택한 이유는 발달 단계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년간의 연령차를 두었다. 표집대상 학교는 부산시의 한 지역구(군)에 소재하고 있어 동일한 지역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각각 약 69%,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의 직업은 자영업, 서비스직 및 사무직이 약 73%이며, 모의 경우 전업주부가 약 60%였으며, 부모의 수입은 약 71%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속하였다.

2. 측정도구

1) 죄책감 척도: 청소년의 죄책감은 연구자들이 제작한 죄책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1학년 80명과 고등학교 2

학년 80명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행위를 물어 빈도가 높은 문항 11개를 선별하고, 또 배회정(1990)의 죄책감 척도 중 4개 문항을 더함으로 하여 15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 요인에 부하된 14개 문항을 구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3개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요인 1의 부정직 행동과 관련한 4개 문항, 요인 2의 이기적 행동과 관련한 5개 문항 및 요인 3의 급우에 대한 괴롭힘 행동과 관련한 5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죄책감 각 문항은 '아무렇지도 않다'의 1점에서 '항상 죄책감 느낀다'까지 3점의 응답범주를 가져, 척도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4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73, .74, .60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 척도: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명목측정식 문항에 응답케 하여 측정하였다. 해당문항의 유목은 설득형, 애정철회형, 완력사용형으로 구분되며, 응답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주로 하는 훈육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하게 된다. 이들 세 하위 유목은 예비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유형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며 이 세 유형은 Hoffman(1977)의 부모 훈육태도 유형 내용과 일치한다.

3) 규칙위반 행위 척도: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위는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19문항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중학교 1학년 80명 및 고등학교 2학년 80명에게 '도래들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금지 행위'를 쓰게 하여 빈도가 높고 본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고, 또 이미경(1995)의 규칙위반 행위의 척도 중 8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40개의 예비조사 문항을 만들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외한 측정문항 19문항을 본 조사의 최종 척도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묶였으며, 요인 1(신분이탈)에는 부모 및 교사에게 반항하기, 돈 놀이기 등이 포함된 7개 문항이, 요인 2(공중질서 위반)에는 공공 시설에서 질서지키지 않기, 장난으로 음란전화하기 등이 포함된 5개 문항이, 요인 3(타

인재산과피)에는 남의 물건 훔치기,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필요한 책장 찢기 등이 포함된 7개 문항이다. 규칙위반 행위의 본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자주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로 척도의 점수 범위는 19점에서부터 9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규칙위반 행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게 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78, .66, .74이었다

3. 절차

본 연구는 기초조사와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초조사는 변인측정 척도문항 수집을 위해, 중, 고등학생 각 80명을 대상으로 1998년 6월 26일에 실시되었고, 1998년 7월 3일에 고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7월 18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표본 추출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동일 지역구(군)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담당 교사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는데 회수된 74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42부를 제외한 총 69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빈도 및 백분율로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성별 및 훈육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유형별 죄책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고, 연령별 성별에 따른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죄책감에 따른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에 따른 죄책감의 차이

먼저, 청소년의 연령별 죄책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따르면 부정적 죄책감, 이기적 죄책감 및 괴롭힘 죄책감에서 중학교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은 죄책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인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들이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본 연구는 Williams와 Bybee(199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죄책감의 각 차원별에 대한 성별차를 알

아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따르면 부정적 죄책감 및 괴롭힘 죄책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F=1.65, F=2.76), 이기적 죄책감에서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6.59, $p < .001$). 즉 여자(M=11.65, S.D=1.76)가 남자(M=11.08, S.D.=1.89)에 비해 보다 이기적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한 죄책감의 각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이기적 및 괴롭힘 죄책감 모두에서 설득형이 다른 훈육방식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죄책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릇된 행위를 한 후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훈육방식 유형이 설득형이었다는 Hoffman(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1>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죄책감

	집 단	평균	S.D.	F	Schaffe
부정적 죄책감	중 1(N=229)	10.52	1.73	15.87***	a
	중 3(N=216)	9.70	1.87		b
	고 2(N=229)	9.69	1.78		b
이기적 죄책감	중 1(N=226)	11.62	1.83	4.71**	a
	중 3(N=217)	11.08	1.89		b
	고 2(N=231)	11.34	1.80		ab
괴롭힘 죄책감	중 1(N=227)	10.91	2.14	30.51***	a
	중 3(N=214)	9.29	2.30		c
	고 2(N=227)	9.85	2.21		b

** $p < .01$, *** $p < .001$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죄책감

	집 단	평균	S.D.	F
부정적 죄책감	남 자(N=354)	9.89	1.84	1.65
	여 자(N=314)	10.07	1.82	
이기적 죄책감	남 자(N=353)	11.08	1.89	16.59***
	여 자(N=321)	11.65	1.76	
괴롭힘 죄책감	남 자(N=354)	9.99	2.31	2.76
	여 자(N=314)	10.08	2.32	

*** $p < .001$

〈표 3〉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죄책감

	집 단	평균	SD	F	Scheff'e
부정적 죄책감	설 득 형 (N=445)	10.23	1.69	17.04***	a
	애정철회형 (N=56)	9.46	2.13		b
	완력사용형 (N=126)	9.25	1.93		b
이기적 죄책감	설 득 형 (N=446)	11.48	1.81	3.99*	a
	애정철회형 (N=56)	11.18	2.06		b
	완력사용형 (N=126)	10.98	1.84		
괴롭힘 죄책감	설 득 형 (N=441)	10.30	2.27	10.07***	a
	애정철회형(N=56)	10.13	2.20		b
	완력사용형 (N=126)	9.28	2.19		

* p < .05 *** p < .001

2.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규칙위반 행위의 차이

청소년의 연령별 및 성별차에 따른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신분이탈과 공중질서 위반 및 타인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연령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분이탈의

경우 중3학년(M=14.13)과 고2학년(M=14.62)은 중1학년(M=10.79)보다 위반 행위를 더 많이 하였다(F=51.15, P<.001). 공중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중3학년(M=14.21)이 중1학년(M=12.85)과 고2학년(M=12.98)보다 위반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3.95, P<.001). 그리고 타인재산파괴 행위에서도 중3학년(M=11.09)이 중1학년(M=9.45)과 고2학년(M=10.14)보다 위반 행위를 더 많이 하였다(F=12.35, P

〈표 4〉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위 이원 변량분석

유 형	변 량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	F
신분이탈 (N=689)	연령(A)	2098.10	2	1049.05	51.15***
	성(B)	437.43	1	437.43	21.33***
	A×B	140.29	2	70.14	2.42
	오 차	14009.14	683	20.51	
공중질서위반 (N=693)	연령(A)	299.11	2	149.55	13.95***
	성(B)	74.83	1	74.83	3.98
	A×B	60.80	2	30.40	2.83
	오 차	7367.80	687	10.73	
타인재산파괴 (N=684)	연령(A)	312.96	2	156.48	12.35***
	성(B)	54.77	1	54.77	4.32*
	A×B	21.29	2	10.65	.84
	오 차	8594.39	678	12.68	

* p < .05 *** p < .001

<.001).

다음, 성별차에 있어 공중질서 위반 행위에서만 성별차가 발견되지 않았고($F=3.98$), 신분이탈과 타인재산파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분이탈의 경우 남자($M=13.86$)가 여자($M=12.41$)보다 위반행위를 더 많이 하였다($F=21.33, P<.001$). 타인재산파괴 역시 남자($M=13.55$)가 여자($M=12.92$)보다 위반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32, P<.05$). 그리고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위반행위의 세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청소년의 유형별 죄책감과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간의 상관관계

유형별 죄책감과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유형별 죄책감과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간의 상관($N=698$)

	1	2	3	4	5	6
1. 부정직 죄책감	1.00	.54***	.46***	-.52***	-.29***	-.43***
2. 이기적 죄책감		1.00	.49***	-.39***	-.32***	-.33***
3. 괴롭힘 죄책감			1.00	-.27***	-.30***	-.24***
4. 신분이탈				1.00	.38**	.66***
5. 공중질서위반					1.00	.35***
6. 타인재산파괴						1.00

*** $p < .001$

<표 5>에 따르면 죄책감 유형 모두는 규칙위반 행위 유형 모두와 부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별 죄책감이 높을수록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는 낮아졌다. 신분이탈 행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죄책감은 부정직 유형이었고($r=-.52, p<.001$), 공중질서위반 행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죄책감은 이기적 유형이었으며($r=-.32, p<.001$), 타인재산파괴 행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죄책감은 부정직 유형이었다($r=-.43,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및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라 유형별 죄책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형별 죄책감이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와 상관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남녀 698명의 청소년이었고 변인들은 질문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죄책감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보면, 전 유형별 죄책감 즉 부정직, 이기적, 괴롭힘 관련 죄책감 모두에서 연령이 가장 낮은 중학교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초기의 인습수준의 도덕적 사고는 사회적 규율과 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함으로 이 기준을 위

배하였을 때 자기비난의 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중학교 1년생에게 초등학교와는 다른 더 엄격한 규칙준수를 요구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위반행위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우리 학교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Bussey(1992)는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연령이 적은 아동은 처벌여부에 의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죄책감의 검증 결과는 어린 연령일수록 사회규칙 위반에 대한 유혹을 죄의식으로 이겨낸다는 Smart와 Smart(1982)의 주장과 일치하며 또 어린

연령일수록 사회의 규칙 혹은 부모의 권위를 수용한다는 Piaget의 도덕성 이론에 부합된다. 그러나 Darby와 Schlenker(1982)의 나이든 아동들이 어린 아동에 비해 비난받을 행위에 대하여 자기비난의 강도가 높아 죄책감을 더 느낀다는 보고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Williams와 Bybee(1994)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야 하는 내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죄책감이 증가하지만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행위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죄책감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죄책감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이기적 죄책감 영역에서 여아집단이 남아집단에 비해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대인배려와 관련된 죄책감에 더 민감하다는 Gillian(1982)의 주장 및 다른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신뢰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Williams와 Bybee(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남을 돕거나 보살피는 일을 여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화 경향과도 관련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셋째, 죄책감에 대한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의 영향에서는 유형별 죄책감 하위 영역 모두에서 설득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영향을 주는 훈육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릇된 행위를 한 후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 아동은 설득형으로 훈육받은 아동이었다는 Hoffman(1977)의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로 사회 혹은 부모의 도덕적 기준에 무조건 순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처벌이나 애정철회로 하는 훈육방식보다는 설득형 훈육방식이 청소년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남득이 가는 결과이다.

넷째, 연령에 따른 규칙위반 행위를 검토한 결과, 규칙위반 행위 전 유형에서 중학교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규칙위반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공중질서위반 행위와 타인재산파괴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질서위반과 타인재산파괴 행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더 많은 위반을 한

다는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15세 경이라는 Gold와 Petronio(1980), Sykes(1980)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다(장휘숙, 1995. 재인용). 이는 고입이라는 스트레스가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환경적, 심리적 특징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데,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비행과는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Compass, Makarene와 Fondacaro, 1988)와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별차가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신분이탈 행위 및 타인재산파괴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직과 복종에 대한 고정적인 성별차에 대한 강화 탓으로 남자가 위반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직을 여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 탓으로 남자가 더 많이 속인다고 보고한 Roskense와 Dizney(196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신분이탈 및 타인재산파괴 행위는 청소년 비행의 주된 행동유목으로 이는 남아의 비행이 여아의 비행보다 더 많다는 보고(청소년 백서, 1998)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중질서위반 행위에서는 성별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김정만(1994)의 학교 규칙 및 공중도덕 위반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한다는 보고와 불일치하는 데, 이는 세부적 규칙위반 행위 유목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기대된다. 여섯째, 유형별 죄책감과 유형별 규칙위반 행위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모든 변인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위반 행위를 적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인의 죄책감 수준이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주며 도덕적 행위를 예측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일탈행위가 적거나 속이기를 적게 한다는 연구(박주란, 1995; Mosher, 1979; Bybee, Williams & Merisca, 1994)와 죄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가 높다는(정은수, 198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도덕적 정서로서 죄책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Williams & Bybee(1994)와 Tangney(199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죄책감의 모든 유형에 있어서 연령이 낮은 중1학년이 연령이 높은 중3, 고2학년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여아가 남아 보다 이기적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나, 부정적 죄책감과 괴롭힘 죄책감에서는 성별차가 없다. 그리고 청소년의 죄책감 수준은 부모가 애정철회형과 권력단언형 훈육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설득형 훈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가장 높다. 둘째, 중학교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규칙 위반 행위 수준이 가장 낮다. 셋째, 신분이탈과 타인 재산파괴 규칙위반 행위수준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 넷째, 모든 유형의 죄책감과 모든 유형의 규칙 위반 행위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죄책감 수준이 높을 수록 위반행위는 적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규칙위반 행위 수준을 유형별로 나누고 죄책감 수준 역시 유형별로 나누어서 위반행위와 죄책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 규칙위반 행위 수준과 죄책감 수준은 그 유형에 따라 연령별 성별차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남녀 청소년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 중 설득형이 부정적 죄책감, 이기적 죄책감, 및 괴롭힘 죄책감의 수준을 가장 높여주는 중요한 훈육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반항기의 청소년들의 위반행위를 감소하고 죄책감을 발달시키는데 부모의 귀납적인 설득형의 훈육 태도에 의한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훈육방식 측정에 있어 각 훈육방식 유형에 따른 문항을 한 문항으로만 측정된 관계로 응답자가 자신이 지각하는 실제의 훈육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표시할 수도 있어 응답자 부모의 훈육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훈육방식과 부모의 실제의 훈육방식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훈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항측정은 물론 연구 대상자와 그 부모 모두에게

훈육방식을 묻는 정교한 측정방법이 요구된다.

죄책감은 자신의 규칙위반 행위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Ruble, Parson, & Ross, 1976; Weiner, 1979, 최순영, 1989, 재인용) 죄책감과 관련한 다른 인지적 요인들을 매개로 할 경우 도덕적 행위와 죄책감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키워주는 것이 청소년기의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는 가족 기능 중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바탕을 둔 친밀감, 의사소통, 동일시 및 감독 등 훈육 외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행해지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 (1):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11.
- 김정만(1994). 국민학교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원(1987). 도덕의식과 실천행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란(1995). 도덕적 판단능력, 죄책감 그리고 감시 상황요인이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희정(1990). 비행청소년 범죄 및 가치의식 조사를 통해 본 선교의 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수(1985).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외(1995). 아동발달 심리, 서울 : 학지사.
- 장휘숙(1995). *청년심리학*. 서울 : 장승.
- 문화체육부(1998). *청소년 백서*.
- 하영희(1996). 귀인경향에 따른 도덕성(도덕신념, 판

단, 행동) 발달 분석,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Aronfreed, J.(1964). The Origine of self criticism. *Psychological Review*, 71, 193-218.
-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b).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c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 364-374.
- Burton, R. V. (1971). Correspondence between behavioral and doll-play measures of consc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 302-332.
- Bussey, K.(1992). Lying and truthfulness :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Bybee, J., willams, C., & Merisca, R.(1994). Greater guillt it related to prosocial, academic,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Poster presened at the 10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Chapman, M., Zahn-Waxler, C., Cooperman, G., & Iannotti, R.(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40-145.
- Compass, B. E., Madarne, R.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05-411.
- Darby, B. W., & Schlenker, B. R. (1982). Children's reactions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David R. S.(1995).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최순영, 김수정 역. 서울: 학지사.(원본 발간일(1988).
- Hoffman, L. W.(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1959). Role-Taking in childhood and its consequences for social learning. *Child Development*, 30, 239-252.
- Malinowski, C. I. & Smith, C. P.(1985). Moral reasoning and moral conduct : An investigation prompted by Kohlberg'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16-1027.
- Moore, G. & Stephens, W. B. (1971). Two year gains in moral conduct by normals and retardates. Paper delivered at the bi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1971.
- Mosher, D. L.(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E. Izard(ED), *Emotions and personality in psychology*, 105-129. N. Y. : Plenum Press.
- Perry, D. C. & Bussy, K.(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최순영 역. 서울: 성원사. (원본 발간일, 1984).
- Roskense, R. W. & Dizney, H. F.(1966). A study of unethical academic behavior in high school and colle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 231-234.
- Santrock, J. W.(1975). Father absence, perceived matern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in boys. *Child Development*, 46, 753-757.
- Smart, M. S., & Smart, R. C.(1982). *Childre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4th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Tangney, J. P.(1991). Moral affect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 598-607.
- Williams, C. & Bybee, J.(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 617-623.